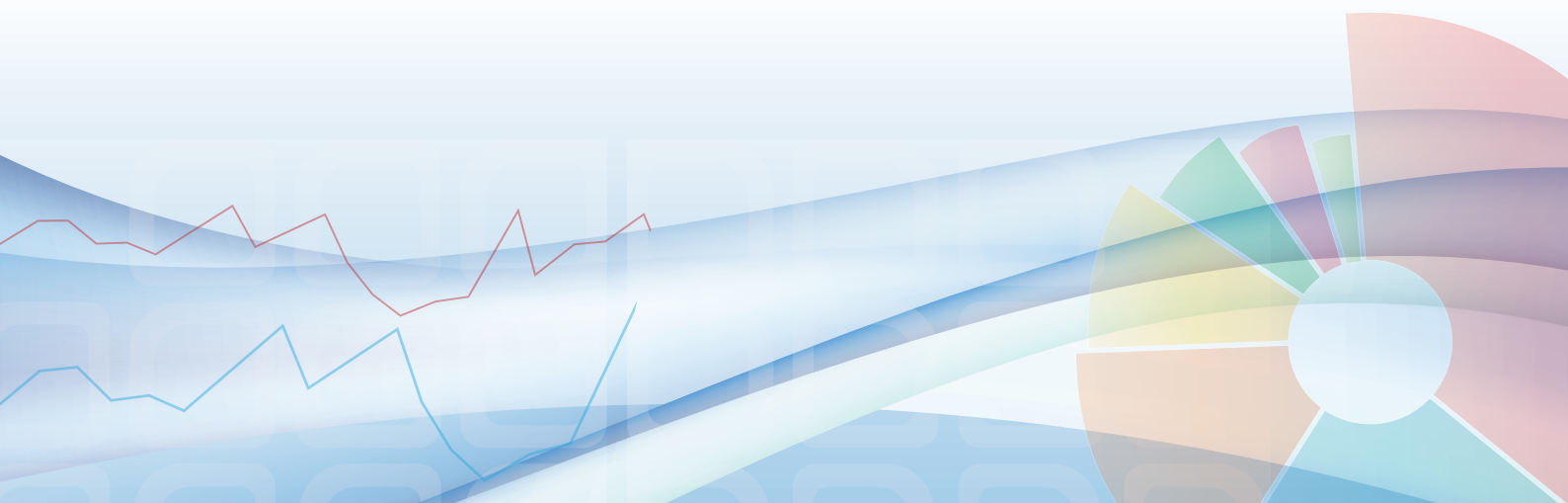


2012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이원자 편역

일본국제교류기금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일본연구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공동조사연구에 의한 것이며,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소장이 총괄하였습니다.

본 조사연구는 2005년 이후의 한국에서의 일본연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단, 분야에 따라 조사대상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의 연구조사는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진창수 엮음, 2007, 한울아카데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필자 |

- **진창수** _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소장, 책임연구자
- **이면우** _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도형** _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 **윤병남** _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일본문화전공교수
- **최 관** _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교수
- **최재철** _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학부교수
- **이강민** _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교수
- **한영혜** _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제4장 한국에서의 일본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윤 병 남 (서강대학교)

1980년대 초에 시작된 한국에서의 일본사연구는 30년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 명에 지나지 않았던 연구자가 100명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들이 주로 연구 활동을 펼치는 일본사 관련 전문 학회도 다수 출현하였다. 이들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지에서 매년 200편에 육박하는 논문이 발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발표된 논문의 수가 1,000편에 육박하게 되었고 발간된 저서도 150권을 넘어섰다. 이러한 연구 업적의 급격한 증대는 비단 일본사 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짧은 일본사 연구의 역사를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개별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⁵⁶⁾ 대신에 지난 7년간의 일본사 연구의 전체적 상황을 개관하고 아울러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의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연구자의 수, 발표 논문과 저서의 수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연구 주제의 분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최근의 연구에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현상파악을 토대로 향후 일본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에서의 일본사 연구 회고 -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를 중심으로⁵⁷⁾

1.1. 1980년대 이후 1세대 일본사 연구자의 등장과 일본사 연구의 시작

한국에서의 일본사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시기에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일본사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주요 대학에서 일본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연구자가 비록 소수이지만 등장하여 일본사 연구의 막을 열었다. 이들 1세대 연구자의 등장 전에는 일본사 연구자가 매우 희소했고 또한 사학과와 같은 관련학과에서 일본사 담당 교수직이 거의 설치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자 수는 5명 내외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에 의한 독자적인 학회활동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역사학회나 동양사학회 등이 이들 연구자의 주된 활동 무대였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이 다루는 일본사의 전공 분야와 주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

56) 역사학회에서 발간하는 『역사학보』에서는 매년 한국 역사학계의 연구 업적을 검토하는 “회고와 전망”을 싣고 있는데, 한국사, 동양사·서양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격년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사의 경우는 동양사에 포함되는데,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57) 김선민, 「한국의 일본사 연구 현황과 과제」 진창수 편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울, 2007)을 참조할 것.

었다. 이들의 연구는 각각 한일관계사의 쟁점인 임나일본부 문제, 메이지유신의 지조개정, 메이지시대의 대외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각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의 역사학계에 일본사 연구의 존재감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1세대 연구자들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1세대 연구자의 더 중요한 기여는 2세대 연구자 양성의 토대를 구축한 점이었다. 일본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에서 관련 강의 수강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었던 학생들이 일본사를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영향력은 출강 등을 통해서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이들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 중에서 2세대의 일본사 연구자가 다수 배출되었음은 물론이다.

1.2. 1990년대 초중반이후 일본사 연구자의 확대와 연구의 활성화

1.2.1. 연구자수의 증가와 전문학회 및 전문학술지의 등장

1980년대 초중반부터 1세대 연구자들에게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국내외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일본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숫자가 1980년대 말까지 약 30명 수준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있었고 학부 졸업 후 곧바로 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학생의 압도적인 다수가 일본의 대학에 진학하였고 일부가 미국의 대학을 선택하였다.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도 소수이지만 존재하였다. 이들이 2세대의 일본사 연구자로 성장하였는데,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기 시작하여 1세대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일본사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세대 연구자들의 증가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일본사 관련 학회의 설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관여한 대표적인 학회로는 한일관계사학회(1992), 일본사학회(1994), 한국일본사상사학회(1997), 한일민족문제학회(2000) 등을 들 수 있다. 학회의 성격에 따라 회원의 수에 차이가 있지만, 한 사람이 다수의 학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들 학회에서 잇따라 『한일관계사연구』(1993), 『일본역사연구』(1995), 『일본사상』(1999), 『한일민족문제연구』(2001) 등의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사 연구가 역사학계에서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일본사 연구가 학계에서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사 전공자들의 역사학회, 동양사학회, 일본학회 등의 대규모 기존 학회의 참여도 계속되었고 이들 학회의 활동에서 일본사 분야는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들 학회가 각각 발행하는 『역사학보』, 『동양사학연구』, 『일본학보』 등에서 일본사 관련 논문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었음은 물론이다.

1.2.2. 연구자의 수와 전공 시대별 분포의 특징

누가 일본사 연구자인가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 수나 연구 논문의 수를 다룸에 있어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석사나 박사의 대학원 과정에서 일본사 또는 인접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융합과 통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의 학문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접 분야를

포함하는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후자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본사 연구자는 1990년대 말에 60명을 넘어섰고, 2004년까지 80명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매년 5명 내외의 박사학위자가 국내외에서 배출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연구자 수도 완만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연구자의 전공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현대사 연구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고대사와 근세사가 뒤를 잇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고대사 전공자의 숫자가 많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근세사 전공자의 수가 고대사 전공자의 수를 약간 상회하게 되었다. 근현대사와 고대사 분야의 연구자 수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들 분야가 한일관계사의 쟁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세사 분야는 연구자가 계속해서 매우 희소한 분야로 남아 있다. 이 분야는 연구자 수는 적지만,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연구자가 다수를 점하여 한국의 일본 중세사 수요에 나름대로 잘 대응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논문 수의 시대별 분포는 연구자 수의 시대별 분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한일관계사 관련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한국사의 관점에서 바라 본 한일관계사 연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부 공동연구가 없지 않았지만, 개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 초창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2005년~2011년 일본사 연구의 현황 개관

2.1. 일본사 연구자 수의 완만한 증가와 취업 기회의 확대

〈표 IV-1〉 일본사 연구자의 수와 전공시대별 분포(2011년)

시대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합계
연구자수	24	8	28	58	118

2004년에 약 80명에 달한 일본사 연구자가 2011년에는 약 120명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표 IV-1). 2000년경부터 매년 국내외에서 5명 전후의 박사학위자가 배출되어 연구자수가 완만한 증가를 보인 결과이다. 일본 및 미국의 해외 대학의 학위 이수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일본의 비중은 70%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일본의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일본사 연구자 양성의 주된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이수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사 박사학위 소지자의 국내 대학 등 연구기관에의 취업 기회의 확대는 국내 일본사 연구의 기반을 견고한 토대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째 경로로 대학의 사학과에서 일본사 전공 교수직이 신설되어 충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충원이 이루어져 왔는데, 소수이지만 복수의 일본사 연구자가

한 학과에 재직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충원이 교수직의 신설과 새로운 교과과정 신설을 통해 이루어진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요 대학 중에서도 여전히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충원의 전망도 밝지 않은 것은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취업 경로로 들 수 있는 것이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일어난 지역학과 개설 붐 속에서 이루어진 일본학과에 채용되는 경우이다.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교육과정을 지닌 일본학과에서 일본사 전공자는 필수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경로는 기존의 일본어문학과에서 일본사 전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인데, 일본사 전공자들이 기존의 어문학 중심의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사 연구자가 대학의 학과가 아니라 일본관련 연구소 등에 소속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비전임 신분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자들에게 연구와 강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 아닌 국책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인문한국사업(HK사업)의 실시에 따라 연구전담 교수직이 증가하여 일본사 전공자들도 그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인문학 분야와 해외지역연구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에서 고려대학교의 일본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의 일본연구소가 해외지역연구의 일본연구 분야에 선정되어 다수의 일본사 연구자가 연구교수로 채용되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로 2006년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과 그 산하에 설치된 독도연구소가 다수의 일본사 전공자를 연구위원으로 충원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일본사 전공자의 대학 및 연구기관 취업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언급해야 할 점이 일본사 연구의 인프라 확충이다. 전신인 학술진흥재단 시대를 포함한 한국연구재단의 제반 연구지원사업의 확충 속에서 일본사 연구자도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스터디 지원을 통해 학회 내의 소규모 연구팀이 지속적으로 연구 모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독자적인 학회와 학술지를 보유한 일본사 관련 학회들이 학술지 발간비 지원이나 학술대회개최 지원을 받아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이 모든 지원 분야가 비교적 경쟁이 치열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일본사 분야의 발전이 연구재단의 지원에 도움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대형 지원사업으로 HK사업이 출범하여 해외지역연구로서 일본연구 분야에서 2개의 연구소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HK사업은 다수의 일본사 연구자를 전임 연구원 또는 연구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 연구계획의 수립, 대규모적인 학술대회 개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 다양한 DB 및 자료 구축 등을 통해 일본사 연구의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9월에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은 위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지원기능을 역사학계에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일본사 연구의 인프라 확충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대 이사장으로 일본사 연구자가 취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단의 지원사업이 일본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수의 일본사 연구인력이 연구위원으로 채용되어 국내의 단일 연구기관 중에 일본사 연구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개별 및 공동 연구 지원,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학술대회개최 지원 등에서 일본사 연구자나 학회가 크게 도움을 받았

다. 재단이 운영하는 자료센터의 일본사 관련 자료는 자료의 양에서나 질에서나 국내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장서가 두 개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단시간 내에 구축한 자료가 일본사 연구자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 다양한 관련 정부 위원회의 출현도 일본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대부분 이들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다수의 일본사 연구자들이 연구 인력으로 채용되었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는 먼저 보고서로 작성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연구자의 연구 논문 등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2.2. 연구논문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대별 및 주제별 분포

아래의 <표 IV-2>는 지난 7년간의 일본사 관련 논문의 양적 확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⁵⁸⁾ 2007년까지 90편 내외의 논문이 산출되었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거의 배증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 1년에 200편을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논문 수의 비약적 증가에 비해 저서의 수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2> 일본사 관련 논문 및 저서의 연도별 분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논문	86	90	87	153	148	210	140	914
저서	28	13	18	25	18	31	20	153

<표 IV-2>는 2008년 이후에 논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러한 변화가 연구자 수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사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 연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고, 매년 5명 전후의 연구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의 채용 및 승진을 위한 연구업적평가의 지속적인 강화 추세에 따라서 연구자 일인당 논문 산출량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개별 연구자가 한 해에 4-5편의 논문을 발표한 경우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일본사 연구자로 규정한 사람 이외의 인접 분야의 연구자가 산출한 일본사 관련 논문의 증가가 논문수의 증가에 기여한 점도 주목해 볼 사항이다. 첫째, 한국사 전공자 중에서 한일관계 관련 논문을 발표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었다. 둘째,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역사적 성격이 강한 연구를 수행하여 <역사와 사회>, <일본연구논총>, <경제사학>, <일본비평>, <일본공간> 등의 사회과학적 성격이 강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구자의 수가 많은 일본어문학 분야의 연구자가 역사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위의 세 가지 경우에 논문의 발표자들은 대체로 일본사 연구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연구가 일본사 관련 논문으로 간주되어 논문 수의 증가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58) 동양사학회가 발간하는 『동양사학연구』에 매년 게재되는 “국내 동양사관계 논문목록”을 토대로 논문수를 파악하였다.

일본사 논문의 연도별·주제별 분포를 일본사 연구자들의 주된 활동 무대인 일본사 관련 주요 6개 학술지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IV-3>은 『일본역사연구』, 『동양사학연구』, 『역사학보』, 『한일관계사연구』, 『일본사상』, 『한일민족문제연구』의 6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수의 연도별 분포를 보여준다.

<표 IV-3> 6개 학술지 일본사 관련 논문 수의 연도별 분포

학술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일본역사연구	11	12	14	14	11	17	14	93
동양사학연구	3	1	1	4	3	6	3	21
역사학보	2	4			2	1		9
한일관계사연구	12	20	25	26	21	21	27	152
일본사상	4	6	4	4	7	4	2	31
한일민족문제연구	1	1	2	1		3	5	13
합계	33	44	46	49	44	52	51	319

다른 5개 학술지에서는 발표 논문수가 완만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한일관계사연구』에서는 논문 수가, 특별히 2006년부터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문 수의 증가에 따라 『한일관계사연구』가 2007년부터 연 2회에서 3회로 발간 주기를 변경하였다. 물론 『동양사학연구』와 『역사학보』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오래 전부터 연 4회 발간체재를 이루어 왔지만, 나머지 일본사 관련 학술지는 현재까지 반년간의 간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의 등장에 따라서 기존의 『역사학보』와 『동양사학연구』에 게재되는 일본사 관련 논문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일본사 관련 4개 학술지가 일본사 연구자의 논문 발표의 주된 학술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사 관련 학술지 발표 논문의 시대적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표 IV-4>와 <표 IV-5>이다. 전자는 6개 역사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모든 학술지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6개 주요 학술지 발표 논문의 수가 전체 수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사 관련 논문의 발표의 장이 매우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문의 시대별 분포는 <표 IV-4>와 <표 IV-5>에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근현대 관련 논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근세, 고대, 중세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중세를 다룬 논문의 비중이 다른 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4>에서 한일관계사 관련 논문의 비중이 어떠한지를 알아 보았는데, 전체 발표 논문 중 약 2/3를 차지하여 매우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6개 학술지 중 발표 논문 수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일관계사연구』 발표 논문이 대부분 한일관계사를 다룬 논문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IV-4〉 6개 역사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시대별 분포 및 한일관계사 관련 논문 수

학술지명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합계	한일관계사
일본역사연구	20	9	15	49	93	35
동양사학연구	2	2	6	11	21	5
역사학보	0	0	3	6	9	3
한일관계사연구	24	23	54	51	152	152
일본사상	6	1	15	9	31	12
한일민족문제연구				13	13	13
합계	52	35	93	139	319	220

〈표 IV-5〉 일본사 관련 논문의 연도별 시대 분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통사		3	1	2	1	2	5	14
고대	6	18	9	19	30	19	20	121
중세	3	5	4	8	7	12	6	45
근세	16	20	18	35	24	48	27	188
근·현대	61	44	55	89	86	127	82	544
합계	86	90	87	153	148	208	140	912

약 1,000편에 육박하는 일본사 논문의 주제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IV-6>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일반적인 주제 분류에 더하여 한일관계, 역사인식, 영토·영유권 등의 특수 주제를 더하였다. 대주제와 소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적용한 것은 주제 분포의 대체적 추세를 알기 위한 편의적 조치일 뿐이다. 대주제에도 주기한 바와 같이 소주제들이 일부 포함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한 논문이 불가피하게 2가지 이상의 주제에 동시에 분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제별 분류에서 나타난 수치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 논문이 복수의 주제로 분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 IV-6>의 논문 수 합계가 <표 IV-5>의 논문 수 합계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도 특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표 IV-6〉 일본사 관련 논문의 연도별 주제 분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정치(1)	10	11	11	9	18	22	14	95
경제	3	3	2	5	3	4	6	26
사회(2)	10	12	9	21	18	26	16	112
문화(3)	7	8	26	36	28	36	37	201
대외관계(4)	9	6	11	15	9	21	15	126
한일관계(5)	32	23	22	47	48	84	36	292
역사인식(6)		1	1	12	21	9	13	57
영토·영유권		2	5	4	5	12	3	31
기타(비평논문 등)		2		2		2		6
합계	86	90	87	153	148	216	140	979*

(1) 군사·법 포함 (2) 종교 포함 (3) 사상 포함 (4) 대외관 포함, 한일관계 제외

(5) 재일동포 문제 포함, 한일 비교 포함 (6)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포함

<표 IV-6>이 보여주는 일본사 논문의 주제별 분포의 주된 특징은 <표 IV-5>에서와 같이 다른 주제에 비해 한일관계 관련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이다. 또한 경제 분야 논문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을 제하면 비교적 고른 주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일본사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일본사 연구자 수의 증가가 다루는 주제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제의 발굴이 일본사학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IV-4>와 <표 IV-6>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일관계를 다룬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표 IV-6>의 연도별 발표 논문의 주제별 분포에서 한일관계를 다룬 논문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주로 한·일간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라 할 수 있는 역사인식이나 영토·영유권 관련 논문 수를 더하면 그 비중은 훨씬 커지게 된다.

2.3. 일본사 관련 단행본 출간의 현황

<표 IV-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5년 이후 매년 대략 30권 내외의 저서가 발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서 수의 산출에 있어서 번역이 제외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저서는 저자 수에 따라 개인의 단독 저서와 공동 저서로 나눌 수 있고, 저서의 성격에 따라 전문 연구서와 개설적 성격의 저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표 IV-7>은 저서의 시대별, 연도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도별 증감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시대별 분포는 근현대를 다룬 저서의 수가 전체 저서 수의 절반을 상회하는 가운데, 고대와 근세를 다룬 저서 수가 20권 내외로 비슷하고, 중세를 다룬 저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이미 살펴본 대로, 2008년을 기점으로 논문 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서의 상당수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개설적 성격의 저서인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일본사 연구가 다른 인문학 분야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경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IV-7> 저서의 시대별 분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통사	5	2	2	12	8	4	5	38
고대	5		2	4	1	5	3	20
중세								
근세	5	1	5		1	3	2	17
근현대	13	10	9	9	8	19	10	78
합계	28	13	18	25	18	31	20	153

저서의 주제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표 IV-8>인데, 논문의 주제 분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류의 기준은 편의상 대주제와 소주제를 병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표는 한일관계를 다룬 저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주제들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양한 주제의 저서가 출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서에는 개인 단독 저서 뿐 아니라 공동연구의 결과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 이후 동 재단의 지원을 받은 공동연구가 저서로 출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저서의 다수는 역사교과서, 역사인식, 전후처리, 영토문제 등의 주제를 다룬 것이었다. 위의 공동연구를 학회가 수주하여 주도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그러한 경우 연구의 결과물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수행 패턴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학술지의 기획 특집 논문으로 먼저 게재되기도 하였다.

〈표 IV-8〉 저서의 주제별 분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개설	3	3	1	8	5	4	4	28
정치(1)	3	3	3	5	4	4	2	24
경제	1		1					2
사회(2)	1	2	3		1			7
문화(3)	12	1	1		1	1	2	18
대외관계(4)	1		2	1	2	1	3	10
한일관계(5)	5	2	7	4	3	15	7	43
역사인식(6)	1	2		6	2	3	1	15
영토				1			1	2
기타	1					3		4
합계	28	13	18	25	18	31	20	153

(1) 군사·법 포함 (2) 종교 포함 (3) 사상 포함 (4) 대외관 포함, 한일관계 제외

(5) 재일동포 문제 포함, 한일 비교 포함 (6)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중군 위안부 문제 포함

저서의 발간에서 일본사의 대중적 보급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본사 개설서 및 대중 교양서의 간행의 확대이다. 개설서의 경우 대학에서 일본사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대학에서 주로 사용된 일본사 개설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간행된 개설서의 번역본이었다. 한국의 저자들이 쓴 개설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개설서에 대한 학계 내의 바람이 적지 않았다. 일본사학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내놓은 『아틀라스 일본사』(사계절, 2011)는 이러한 학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설서라 할 수 있겠다. 한일관계사의 개설서는 일본사 개설서에 비해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이 기간 동안 『한일관계 2천년』(정인문화사, 2006), 『한일교류의 역사』(혜안, 2007), 『마주 보는 한일사』 2권(사계절, 2006) 등이 잇따라 출간되었다.

저서의 발간과 관련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 번역서의 출간이다. 저서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번역된 것은 제외하였지만, 일본사 관련 주요 사료의 번역 및 사료집의 간행에 대해 약간 언급해 두고자 한다. 고대사의 대표적 사료의 하나인 『속일본기』 전2권(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 2009-11)

과 중세사의 『신황정통기』 (소명출판, 2008), 근대사의 『특명전권대사미구회람실기』 전5권(소명출판, 2011)가 잇따라 번역·출간되었다. 상세한 역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대한 사료집의 간행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사료집성』 32권 (경인문화사, 2004)과 『일본 고중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 (혜안, 2005)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사료의 번역과 사료집의 간행은 일본사 연구의 토대를 든든하게 구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 공동연구의 확대와 일본사 연구의 심화

일본사 연구의 경향 중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드러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동연구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여 공동 관심사를 지닌 연구자가 증가한 것과 연구지원 기관의 공동연구 지원의 확대가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의 증대는 개인 연구로 충족할 수 없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여 일본사 연구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공동연구는 일본사 연구자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 분야나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자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사학회나 한일관계사학회 등이 학회 설립 초창기부터 특별 주제 하에 자신의 학술대회나 워크숍을 개최해 왔는데, 본격적인 공동연구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특정 주제나 측면을 여러 시대의 전공자가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동연구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술행사에서 왕권, 도시, 전쟁, 대외관계 등과 같은 역사학의 기본 주제들이 다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주제의 선택이 다양해져서 여가와 오락, 여행, 이주와 이민, 재해 등과 같이 새롭게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학술행사의 발표가 논문으로 정리되어 학회지에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술행사는 연구 내용의 다양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사 연구자가 매년 개최되는 전국역사학대회나 동양사학회 동계연구토론회 등에서 공동주제발표자의 일원으로서 참가하는 것도 거의 정례화되었다. 이러한 참여는 일본사의 다양한 측면을 다른 연구자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사 연구자에게도 일본사의 양상을 다른 역사의 양상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위의 두 대회뿐 아니라 다양한 학술대회에서 일본사 분야의 발표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이나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 정치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인식, 전몰자 추모 등의 주제를 다루는 학술대회가 최근 자주 개최되고 있는데, 일본사 연구자가 이러한 학술대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연구의 확대는 학술지의 기획특집 논문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사 관련 학술지는 주로 개별 논문의 모음집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기획특집 논문이 실리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학회 주도의 학술대회나 학회나 회원이 수주한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기획특집의 대표적

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본역사연구』: 역사교과서 문제(27집, 2008. 6), 이토 히로부미와 조선침략(32집, 2010. 12)

『한일관계사연구』: 『해동제국기』 (27집, 2007) 등 주요 사료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계인식(39집, 2011), 역사교과서 문제(40집, 2011)

2.5. 시대별 연구의 특징과 주제별 특징

위에서 제시된 <표 IV-4> 및 <표 IV-6>에서 일본사 연구의 시대별 주제별 분포를 살펴본 바 있다. 한일관계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사회적 수요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문 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05년에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6권과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0권 (경인문화사)이 간행되어 100여 편이 넘는 한일관계사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들을 포함한다면 한일관계사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근현대사 분야는 논문이나 저서에 있어서나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대략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사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19-20세기의 한일관계 및 식민지시기 관련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근세사 분야는 한일관계사 분야인 임진왜란, 조선통신사, 왜관 등 조선후기의 한일관계사 관련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대사 분야는 1990년대 중반까지 근세사 분야를 능가하였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비중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의 주제도 고대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인 ‘임나일본부’ 문제에서 보다 확대된 일본의 고대국가와 한반도의 관계에 관련된 주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중세사 분야는 여전히 연구자 수가 부족하여 연구의 양이 제일 적은 편이다. 비록 소수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루는 주제가 공통성을 띠고 있어서 무가정권의 지배와 왜구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연구수준도 높은 편이라 주목할 만한 연구를 산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학회가 발간하는 『역사학보』의 “한국 역사학계의 회고와 전망”에서 매2년마다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 2편의 비평논문이 간행되고 있어서 국내의 일본사 연구의 동향 파악이 가능하다. 1985년에 일본사 분야가 최초로 설정된 이후 약 5년 주기로 일본사 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1997년에 1994-1996년 3년간의 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시대구분 없이 전체를 다루는 작업이었다. 1998년에 1997년 1년간의 연구를 시대구분 없이 검토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2000년부터 매 2년마다 전근대와 근대로 나누어 일본사 연구를 검토하기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평가들이 다음과 같은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연구자의 수가 증대되고 연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연구의 대상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었다. 물론 역사학의 전통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정치사, 제도사, 사상사, 대외관계사 관련 논문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회고와 전망’에 미루고 최근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제한된 지면에 따른 집필자의 판단에 따른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6. 주목할 만한 새로운 연구경향

위에서 언급한 일본사 연구의 반적 범주에 속하거나 아니면 속하지 않거나 지난 7년간의 연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연구 경향의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려고 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연구들은 그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 새롭고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된 것으로 아래의 연구들이 기존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에 비해서 반드시 연구 수준이 높거나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1) 여행

“에도(江戸)시대의 여행환경: 이세(伊勢)참궁과 관련하여” 『일본역사연구』 23(2006) 이계황

“에도시대 상층농민의 여가와 여행” 『역사학보』 189(2006) 박진한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 37(2005) 박양신

2) 표착·표류

“『朝鮮物語』에 나타난 표류민의 越境과 송환” 『일어일문학』 41(2009) 정하미

“해남 대둔사 승려의 일본 표착과 체험(1817~1818)” 『한일관계사연구』 32(2009) 정성일

3) 이동·이민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양사학연구』 103(2008) 임성모

4) 정보의 수집과 유통·선전전 등

“정보·통신과 임진왜란” 『한일관계사연구』 22(2005) 김문자

“平賀源内の 초빙과 秋田藩의 동광산 개발: 근세 일본의 지식과 기술의 전파의 일 사례의 관점에서” 『역사학보』 192(2006) 윤병남

“근세 초슈(長州)·사츠마(薩摩)의 朝鮮語通詞와 조선정보수집” 『동양사학연구』 109(2009) 허지은

“근세 쓰시마 조선어통사의 정보수집 경로와 내용” 『한일관계사연구』 32(2009) 허지은

“근세 쓰시마의 바쿠후로의 정보보고와 유통” 『한일관계사연구』 37(2010) 허지은

“조선 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分類紀事大綱』 25 「風說之事」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9(2008) 김강일

“조선 후기 東萊府와 倭館의 의사소통: 兩譯 관련 「實務文書」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7(2007) 이훈

“일본의 대소전과전과 조선의 라디오” 『일본연구논총』 26(2007) 박순애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대외 선전: 대외 선전 잡지와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4(2006) 김영숙

“태평양전쟁기 일본 지도층의 인종전쟁에 대한 공포가 전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일본역사연구』 28(2008) 장희식

5) 출판 및 음악·만화·영화 등의 미디어

“일본 근세초/중기의 출판업과 출판 통제령,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매체와 지식정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이계황

“江戸時代の貸本屋について” 『일본학보』 67(2006) 이윤석

“중일전쟁 전후 일본의 음반검열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43(2009) 이지선

“일제의 영화통제정책과 만주영화협회: 순회영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3(2008) 이준식

“1930년대 일본영화 속의 여성담론 『新しき土』와 천황제 내셔널리즘의 대중화” 『일본문화학보』 37(2008)

신하경

- “국가, 전쟁 그리고 ‘일본영화’: 진주만 공습 1주년 기념영화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5(2007) 강태웅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조선병탄과 시선의 정치』 (일조각, 2006) 한상일 · 한 정선
 “한일합병과 시선의 정치학: 근대일본제국의 시각문화와 만화매체” 『동양사학연구』 93(2005) 한정선

6) 여성 · 여성사

- “聖스러움과 女王: 善德과 皇極(齊明)의 즉위” 『일본역사연구』 32(2010) 김선민
 “한일 고대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일본연구』 11(2009) 김영
 “고대 律令法에 기술된 離婚規定과 平安朝의 이혼: 『今昔物語集』의 서민실태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42(2009) 감영희
 “일본 중세의 여성과 성: 규제와 의식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14(2004) 김영
 “일본 중세 성매매에 대한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10(2006) 김영
 “일본 중세 일기문학을 통해 본 여성상: 阿仏尼와 二条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42(2009) 김분숙
 “강호시대 처 재산권에 대한 검토: 이혼시 재산의 귀속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60(2006) 장미숙
 “근대 초기 일본의 ‘여성’ 형성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38(2008) 이은주
 “‘여성’을 말하는 의학(醫學) 학지(學知): 제국 일본과 산과학(産科學)” 『일본역사연구』 28(2008) 가나즈 히데미
 “다이쇼기 일본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노선갈등: 『女性同盟』을 통해 보는 <新婦人協會>(1919~1922의 역사와 의의)” 『동양사학연구』 116(2011) 이은경
 “전간기(戰間期) 일본의 산파와 출산정치” 『일본역사연구』 34(2011) 이수진
 “총력전체제기 일본의 여성노동정책과 전신노동관리에 관한 연구” 『일본역사연구』 34(2011) 김경옥
 “전후 일본 여성의 대외인식: 일본 YMCA의 『女性新聞』(1946~1950) 기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1(2010) 이은경

7) 여가 · 오락

- “근대 일본에서의 노동과 오락의 문제: 明治末期에서 大正期까지” 『일본역사연구』 33(2011) 김영미

8) (일상)생활사

- “17세기 후반 하급무사의 일상생활과 시정(時政) 인식: 아사히 분자에몬(朝日文左衛門)의 『앵무롱중기(鸚鵡籠中記)』(1691~1717)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4(2011) 박진한

9) 도시사

- “일본 근세의 도시사회와 도시지배” 『동양사학연구』 102(2008) 박진한
 “일본 근세 도시사 연구의 전개와 과제” 『동방학지』 139(2007) 박진한
 “근세 후기 관동지역 소도시의 사회집단에 관하여: 무사시노 쿠니 코시가야(武藏國越谷)의 본백성(本百姓)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7(2008) 최은석

10) 재해

- “豊臣政權 末期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상황: 文祿 5년(1596)의 지진발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99(2007) 김문자

11) 번역 · 개념사 관련 연구

12) 천황 · 천황제 관련 연구

13) 만주 · 만주국 관련 연구

- 14) 식민지 시기 및 전후 연구의 세분화
강제동원, 위안부, 특공대, 원폭피해, 전쟁과 기억, 전후보상, 추도시설
재일조선인, 전후 귀환 등
- 15) 탈민족주의적 연구
- 16) 동아시아론: 동아시아 인식, 동아시아공동체 관련 연구
한일간의 공동연구 기회 확대

3. 일본사 연구의 전망과 과제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난 30년 간 일본사 연구는 짧은 기간 동안 연구자 수나 연구업적 수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일본사 연구자들의 80% 이상이 일본 또는 구미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고 비교적 균질적이고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에는 국제교류도 비교적 활발하여 연구 주제, 방향, 방법론, 연구 수준 등에 있어서 일본이나 구미의 영향 하에 그에 비견할 만한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한국의 연구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본사 연구자는 한국의 일본사 연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일본사 연구의 특징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 일본사 부문 집필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된 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편이고 그 방향성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본사 연구가 일본에서의 연구나 구미에서의 연구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별성과 방향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 개인뿐 아니라 학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본사 연구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개별 연구자가 어떻게 자신의 연구 주제 및 영역을 확장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수의 일본사 연구자들은 박사학위취득 후 귀국하여 일정 기간 박사과정 중 수행한 연구주제나 또는 그것에서 확장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과제에서 학위과정에서 다룬 주제와 같은 심도를 지닌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를 낸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학계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일본이나 구미 학계의 연구에도 의미를 지닌 연구 주제를 개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본사 연구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주제나 관심사를 가진 국내의 연구자를 발견하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다. 비약적인 국내 연구 인프라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관련 학술지, 저서, 자료의 부족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만족스러운 정도로 해결된 것도 아니다.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여 시간에 있어서나 비용에 있어서 현지조사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뿌리를 내린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 이상의 의미와 심도를 지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개인의 과제를 넘어서 일본 사학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주제가 적어도 일련의 논문을 통해서 또는 저서의 발간을 통해서 체계적인 성과물로 결실을 맺는 연구자를 다수 배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주제의 개발이 개별 연구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주제에 대한 성과는 공동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10년 간 공동 연구가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사의 주제는 시대 내에서 또는 시대를 횡단해서 연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접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학제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체계적인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당면한 과제는 국제적 공동연구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주로 일본학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연구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을 넘어서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 등의 국가나 지역과의 국제적 연구협력 및 공동연구를 점차적으로 증대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을 발표하고 학회지를 간행하는 일을 넘어서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학회 기능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문학 등 다른 인문학 분야와의 협력뿐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와의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제한된 일본사 연구자의 수를 고려할 때 국내의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문학이나 철학 분야뿐 아니라 정치학이나 사회학 전공자들이 역사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다루는 주제나 자료의 공통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진정한 의미의 학제적 연구를 위해 이들 타 분야 전공자들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연구야말로 전문화와 세분화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본에서의 일본사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국연구재단이나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지원이 일본사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지원확대는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연구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연구를 활성화한 측면이 존재한다. 일본사 연구자들이 이들 기관의 지원 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특별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주제에서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측면이 존재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이 연구의 양적 팽창에 기여한 바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연구 방향 모색을 담보할 수 있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개별 연구자들에게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선민, 「한국의 일본사 연구 현황과 과제」 진창수 편,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울, 2007)
 임성모, 「일본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광복60년 한국역사학의 성과와 과제』 (역사학회, 2005)
 김보한, 「일본전 근대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역사학보』 191집(2006.9)
 박진우, 「2004-2005년의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동향: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 『역사학보』 191집(2006.9)
 박진한, 「일본 전근대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역사학보』 199집(2008.9)
 원지연,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동향」 『역사학보』 199집(2008.9)
 이재석, 「일본 전근대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학보』 207집(2010.9)

- 최석완,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동향」 『역사학보』 207집(2010.9)
- 이희복, 「역사학의 비판정신을 위하여: 일본전근대사의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215집(2012.9)
- 박 훈, 「일본근현대사 연구동향」 『역사학보』 215집(2012.9)
-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2011)
-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경인문화사, 2006)
-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일본역사교육연구회, 『한일공동역사교재 한일 교류의 역사(선사부터 현대까지)』 (혜안, 2007)
- 전국역사교사모임·역사교육자협의회(일본), 『마주 보는 한일사: 화해와 공존을 위한 첫걸음1, 2』 (사계절, 2006)
- 스가노노 마미치, 이근우 역, 『속일본기』 전5권 (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 2009-12)
- 기타바타케 치카후사, 남기학 역, 『신황정통기』 (소명출판, 2008)
- 구메 구니타케, 정애영·방광석·박삼현·서민교·정선태 역, 『특명전권대사미구회람실기』 전5권(소명출판, 2011)
- 손승철 편, 『한일관계사료집성』 32권 (경인문화사, 2004)
- 김기섭 외, 『일본 고종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 (혜안, 2005)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전6권 (2005)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한일관계사연구논집』 전21권 (경인문화사)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우)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8-1 버티고빌딩 2~3층

사무실 : TEL 02-397-2820 | FAX : 02-397-2830

문화정보실 : TEL 02-397-2860 | FAX : 02-397-2870

URL : www.jpfr.or.kr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우)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TEL : 031-750-7500 | FAX : 031-754-0100

URL : <http://www.sejong.org/index.php>